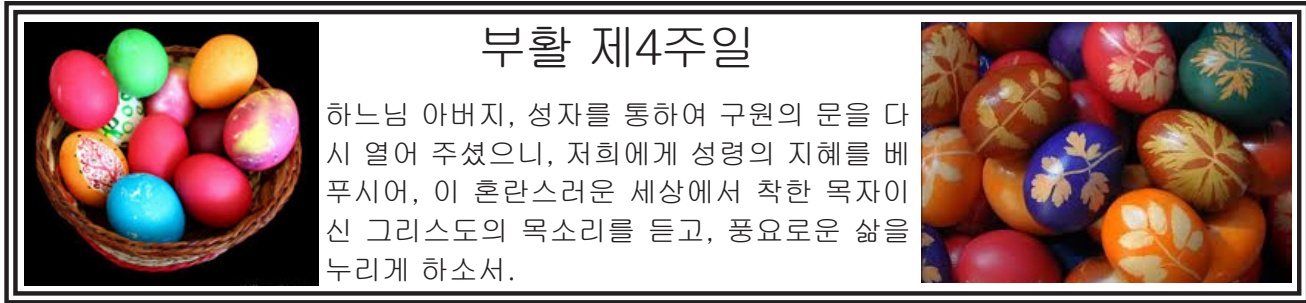


공동체 소식



부활 제4주일

하느님 아버지, 성자를 통하여 구원의 문을 다시 열어 주셨으니, 저희에게 성령의 지혜를 베푸시어,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소서.

5월 기도지향

- 한봉경 베드로, 한순례 루시아 가정
- 한중문 요셉, 한정숙 마리아 가정

성모성월

교회는 해마다 5월을 성모성월로 지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고 믿는 이들의 어머니이시며 한국교회의 수호자이신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하고, 그분에 대한 신심을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경은 하느님께 대한 흠숭과는 다릅니다. 곧 성모님께서서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으신 성인 중의 성인으로 특별한 공경을 받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당 야외미사 및 야유회

- 일시 : 5/11(일) 오전 11시
 - 장소 : 87th Shawnee Mission Park # 8
- ☞ Mother's Day를 맞아 형제님들이 마련한 자리입니다. 함께 하셔서 공동체 친교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북미주 사제 컨퍼런스

- 일시 : 5/19(월) ~ 5/23(금) 4박5일
- 장소 : 뉴욕 살레시오회 돈보스코 센터

평협 회의

- 일시 : 5/18(일) 오후 1시
- 장소 : 회관

기타

- '성모의 밤' 미사를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전례부와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Mother's Day를 맞아 모든 어머니께 감사드리며, 본당에서 준비한 작은 꽃을 달아드립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55	212	176/180	244

주일미사 복사

	향 복사	시종 복사
금주	야외미사 정예찬 (미카엘), 김준영 (요셉)	
차주	정병훈 (보니파시오)	문호진 (안토니오)
	안광민 (야 고 보)	문예나 (요 안 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주연 (세실리아)	류기범 (요 셉) 신혜경 (마 리 아)
차주	최은미 (아 네 스)	문석찬 (요 셉)
		백문주 (엘리사벳)

애찬 봉사자

금주	야외미사
차주	김경희, 김인자, 안혜진, 한순례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 (예레미아), 정수한 (베드로)
차주	백문주 (엘리사벳), 김시연 (엘리사벳)

우리들의 정성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5/4	104명	388불	2,550불
이우석, 전영민, 홍순익, 이영민, Gorman, 정수한, 이내익, 안동현, 문석찬, 김태중, 김원철, 김정환, 정석원, 주영길(총 14세대)			

캔사스한인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원철 바실리오 412.576.5075 willkim777@gmail.com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목자의 비유를 드시며 당신을 ‘양들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오늘 ‘성소주일’을 지내며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성직과 수도 생활을 지망하는 이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늘 새로이 하도록 기도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이 미사에 참여하며 주님께서 교회에 풍성한 성소의 은총을 허락하시기를 한마음으로 청해야 하겠습니다.

성화해설

착한 목자

“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요한 10,11)
우리의 목자 그리스도는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 양 떼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당신 생명을 바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당신 양 떼인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로로말수도회

제 1 독 서 : 사도 2,14ㄱ.36-41 <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



- ◎ 주 님 께 서 는 나 의 목 - 자 아 쉬 울 것 없 노 라
○ 주님께서서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파아란 풀밭에 이 몸 누여 주시고, 고이 쉬라 물터로 나를 끌어 주시니, 내 영혼 싱싱하게 생기 돌아라. ◎
- 주님께서 당신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곧은 살 지름길로 날 인도하셨어라.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 해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나이다. ◎
- 당신의 막대와 그 지팡이에 시름은 가시어서 든든하되다. 제 원수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향기름 이 머리에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 하되다. ◎
- 주님께서 당신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곧은 살 지름길로 날 인도하셨어라. 한 평생 은총과 복이 이 몸을 따르리니, 오래오래 주님 궁에서 사오리다. ◎

제 2 독 서 : 1베드 2,20ㄴ-25 < 여러분은 영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복 음 : 요한 10,1-10 < 나는 양들의 문이다. >

쉐 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오직 하나,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고유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오십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게 이렇게 다가오셨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내게는 이런 방식으로 오셨는데”라고 합니다. 우리가 당신 앞에 나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쓰십니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따뜻한 포용으로, 단호한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따끔한 충고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당신 앞에 나와 섭니다. 당신을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앞장서서 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말랑말랑한 길이 아닙니다. 수난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모욕과 업신여김을 받는 길입니다. 가난한 길입니다. 이런 길은 우리는 걷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길은 잘못된 길, 실패자의 길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 길의 맨 앞에 예수님께서서는 서 계십니다. 그리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따랐습니다. 지금도 많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 험한 길,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고 듣고 따르고 있습니까?

낮선 사람들의 목소리는 달콤합니다. 예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의 소리입니다. 부유함을 쫓게 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게 합니다. 나의 안위와 영달을 우선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명예와 교만을 향해 달려갑니다. 남보다 더 위에 서야 합니다. 잘 난 나에게 사람들은 박수 쳐야 합니다. 그곳엔 낮선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 명예, 교만을 쫓아 온 이들이 모여 서로 싸웁니다. 더 나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놓고 다툽니다. 양보, 사랑, 평화,

격려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와 낮선 사람의 목소리를 양들은 구분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대해줬는지를 경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쓰셨습니다. 낮선 사람들은 양들이 죄를 짓고 죽음으로 향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것을 양들은 압니다. 양들은 목자이신 예수님과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은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분 목소리, 숨소리, 냄새, 걸음걸이, 걸을 때 나는 소리, 이 모든 것들에 익숙해지는 것이 바로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도자가 되겠다고 생각했을 당시를 돌아보면, 부르심의 그 목소리를 듣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항상 제 곁에서 부르고 계셨습니다만, 저는 그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성공, 출세, 부라는 낮선 사람의 목소리에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목소리는 낯설었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면서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양이 되었습니다. 친구가 되는 데는 같이 보내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나와 섰고, 그분 뒤를 따라나 섰습니다. 이제 몇 발자국 따라 걸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고자 따라 나서시는 많은 신자 분들 앞, 뒤, 옆에서 지팡이, 의자, 등불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란 문을 통해 드러나들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이 넘치는 세상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 예수회 김동일 신부 -

주춧돌

제 1 편 하느님 공경

제2-1장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탈출 20,2-3).

I am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of the land of Egypt, out of the house of slavery. You shall not have other gods beside me(Ex 20,2-3).

< 주석 >

너를: ‘너’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로 묶어 표현하기 때문에 단수 2인칭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이 계명들이 이를 듣는 개개인에게도 큰 호소력을 지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 개개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주석 성경, 229 참조).

이집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던 이집트 땅은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노예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신: 하느님 앞에서 다른 신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느님 이외에 그 어떤 것이든 하느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신이요 우상숭배이다. “우상 숭배는 하느님이 아닌 것을 신격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잡신이나 마귀(예를 들어 악마 숭배), 권력, 쾌락, 인종, 조상, 국가, 재물 등 인간이 하느님 대신에 어떤 피조물을 숭배하고 공경한다면 이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마태 6,24)라고 말씀하셨다.……우상 숭배는 하느님께서 유일한 주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하느님과의 친교와 양립될 수 없다”(가톨릭교회교리서, 2113항).

< 설명 >

왜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듭거듭 하느님께서서는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신다. 오직 하느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시기 때문이다. 오직 하느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이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참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느님께 대한 흠숭은 그분을 존경하며 온전히 순명하는 가운데, 하느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의 허무’를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을 폐쇄하는 데에서, 죄의 속박에서, 세상의 우상 숭배에서 해방되는 것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2097항 참조).

< 교회 가르침 >

▶ 첫째 계명은 자신을 당신 백성에게 드러내신 유일하신 주님 외에 다른 신들을 공경하는 것을 금한다. 첫째 계명은 미신(迷信)과 불경(不敬)을 금한다. 어느 면에서 미신은 정도(正道)를 벗어난 경신을 말하는 것이며, 경외심이 부족하여 생기는 불경은 경신덕과 상반되는 악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2110항).

▶ 미신은 우리가 참 하느님께 드러야 할 예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미신은 우상 숭배, 그리고 점이나 마술 등의 여러 형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가톨릭교회교리서, 2138).

< 어록 >

▶ 주님을 그대의 온 마음과 온 의지로 섬기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과분할 정도로 당신을 강복하십니다(피에트랄치나의 성 비오 사제).

▶ 우리는 하느님을 신뢰해야 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하고, 그분을 믿어야 하며, 그분을 위해 노동을 하며 그분께 의탁해야 합니다(복녀 마더 데레사).

▶ 우리의 빈자리에 하느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고, 기도를 통해 하느님 곁에 있음으로써 우리 영혼의 배고픔은 쉽사리 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빈자리로부터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더욱 깊이 맺게 되고, 신앙생활도 한층 더 힘찬 것이 될 것입니다(복녀 마더 데레사).

- 『신앙생활 보감』, 청주교구 복음화연구소, 2013 -